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야미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다.

제목 : 7번방의 선물

2013년 1월 23일에 개봉된 '7번방의 선물'은 코미디 영화이다. 상영한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아버가 다음날은 거로 집에서 TV로 보았다. 7번방의 선물의 줄거리는 예승이(갈소원)가 세일러문 가방을 가지고 분다고 했다. 그런데 그 하나 남은 가방은 경찰 청장판이 사가게 된다. 그녀가 예승이아바(류승룡)이 사간 것을 예승이것 아라고한다. 그래서 그 경찰청장이 예승이아바를 때린다. 경찰청장의 딸 지영이가 용구(류승룡)를 데리고 세일러문 가방 파는 곳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지영이가 그만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지영이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론 범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용구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 7번방의 방장(이달수)를 구해줘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7번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승이를 데리고 온다. 예승이를 교도소에 데리고 온 것이 듣게 된다. 하지만 교도만이 예승이라 용구와 같이 살게 해준다. 나중에 용구의 기억이나 생각해보니, 지영이는 원음 병판에 미끄러지고 벽돌에 부딪쳐서 그만 죽고만 것이다. 용구가 법정에서 설 때 옆 사람들이 '니가 안 죽으면 니 딸이 위험해져.' 등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말은해 무죄인테로 밝히고 자신이 지영이를 죽였다고 한다. 사형 날이 되고, 용구는 딸과 헤어지다가 그만 듣고말았다. 용구는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끝내 죽고말았다. 나중에 예승이가 (박선희) 커서 아버가 무죄라는 것을 법정에서 밝히게 된다.

하필 사형일이 예승이의 생일이였다. 막, 계속 눈물이 흘렀다. 살인사건이 아닌데... 무죄인 이용구는 죽어야 한다니... 아버라 딸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더 늘었다. 그래도 14년이 지난 뒤 이용구의 누명이 벗겨져서 다행이다. 이 영화를 안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분다.